"광주와 함께" 페퍼저축은행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

잔여 홈 경기 입장 수익 아파트 붕괴 피해자에 기부
인재양성·유소년 발전금 지원…연고지 애착심 UP

여자프로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연고지인 광주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재양성 후원금·유소년배구발전지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기부, 지역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에 나선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아픔 나누기에도 동참했다.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구단주인 장매튜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통화에서 잔여 홈경기(6경기) 입장권 수익금 전액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피해자에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장 대표이사는 전남 광주에서 열린 프로배구 올스타전을 참관하고 이튿날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장인 이 시장은 노사민정 협의회 참석을 위해 광주시청으로 이동해 두 사람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 시장에게 위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 대표이사가 이어진 통화에서 홈 경기 수익 기부 의사를 전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광주시와 연고지 협약 당시 지역 배구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억원을 쾌척했다.

또 창단 후 첫 승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입장 수익 1,800만원을 유소년 배구발전 지원금으로 2개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고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이 홍보대사도 맡았다.

페퍼저축은행의 장학금 대상 지역도 연고지역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경기·인천 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19 페퍼희망장학금'을 올해는 배구단 연고지인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 지역으로 변경, 100명에게 총 2억5,000만원의 '희망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발생 후에도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5,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같은 페퍼저축은행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은 연고지 협약 당시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보다.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로 하면서도 선수단 숙소와 훈련장을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에 마련한 데다 시즌에 앞서 광주와 수도권에서 홈경기를 나눠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가 '진짜 연고지'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고지 계약 기간이 5년이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페퍼저축은행이 수도권으로 다시 연고지를 옮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앞으로 여자 배구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고, 홈경기도 수도권과 분리개최가 아닌 광주에서만 개최하고 있다. 팀 이름도 AI 페퍼스로 하면서 AI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광주시의 동반자이자 지역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고 지역사회와의 동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연고지 정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붕괴 사고 수습에 집중하느라 배구계 축제인 올스타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며 "페퍼저축은행이 동계 스포츠 불모지였던 광주 시민에게 배구의 매력을 알리고, 배구계 지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 아픔 공유에도 앞장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장매튜

따로 또 같이…이정효식 '그룹 훈련' 조직력 강화

광주FC 벌교에서 2차 동계훈련
대화 유도 연습경기로 실전 대비
이 감독 "포기하지 않는 팀 목표"

25일 오후 3시 벌교스포츠센터 축구장. 기온은 영상 2도였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다소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뜨거웠다.

28명의 광주FC 선수들은 숨을 헉헉대면서도 서로의 위치를 조정하고 빠르게 공을 패스하면서 대화로 전술훈련을 이어갔다.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파이팅을 외치는 격려 목소리까지 섞이면서 피치 위는 시끌벅적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는 창원에서의 1차 동계 전지훈련을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벌교에서 2차 훈련에 돌입했다. 1차 동계훈련에서 기초 체력 및 근력 강화에 주력한 만큼 2차 훈련은 연습경기를 통해 전술훈련과 실전 감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시즌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광주의 이번 전지훈련 키워드는 '그룹'이다.

이날 벌교스포츠센터에서 만난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조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며 "수비·공격 모든 분야에서 서로 보충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상호관계를 잘 이루는 그룹 훈련을 진행하면서 조직력을 다지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사령탑도 바뀌고 선수단 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연습경기는 더 중요해졌다. 광주는 다양한 상대와 연습경기를 치르며 손발을 맞추고 전력을 다듬는 중이다.

이미 3차례의 연습경기를 가진 광주는 다음달 19일 개막전까지 4차례 더 연습경기를 치러 조직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습경기를 하고 있지만 부상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도 병행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괜히 시간 없다고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루이틀 (훈련을)안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개막전에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경기씩 차례로 준비하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목표를 상향조정 할 것"이라며 "지금은 연습경기든 실전이든 매 경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광주를 상대팀이 짜증내는 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FC를 떠올리면 '짜증나는 팀이다' '저 팀은 얼마나 끈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조직력을 갖춰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팀은 확실하게 잡고 가려 한다. 또 전략적으로 비길 수 있는 팀에게는 승점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전남 드래곤즈가 제일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조직력이 많이 갖춰진 팀인 만큼 승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팀이다"고 말했다.

광주FC는 오는 31일까지 벌교에서 동계훈련을 한 뒤 다음달 19일 열릴 김포FC와의 개막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25일 벌교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광주FC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2 개막전 광주FC vs 김포FC 맞대결

내달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

광주FC가 2022시즌 K리그2 개막전에서 김포FC와 맞붙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2022시즌 K리그2 정규라운드 1라운드부터 44라운드까지의 일정을 발표했다.

올 시즌 K리그2는 새롭게 합류한 김포FC를 포함해 11개 구단이 참가하며, 팀당 40경기를 치르게 된다.

개막전은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김포의 경기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1에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올 시즌 안영규, 문상윤, 박한빈 등 수준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K리그2에서 반등을 노린다.

같은 날 오후 4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킨 안양과 K리그2 최초 FA컵 우승의 역사를 쓴 전남이 만난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안산과 부산의 경기가 열리고, 오후 4시에는 경남과 서울이랜드, 부천과 충남아산이 각각 맞대결을 펼친다.

월요일 저녁에 열리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올해도 계속된다. 2022시즌 첫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는 4월 11일 열리는 김포와 경남의 맞대결이다.

정규라운드 44라운드를 마친 후에는 K리그1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K리그2 4위와 5위 간 준플레이오프는 10월 19일, K리그2 3위와 준플레이오프 승리팀간 플레이오프는 10월 23일 열린다.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 간 승강플레이오프는 10월 26일,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간 승강플레이오프는 10월 30일에 각각 열린다. /조혜원 기자

광주서구청이 시즌 첫 전국대회인 2022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왼쪽부터 노선경, 강영미, 허다정, 최은숙. /광주서구청 제공

광주서구청 시즌 첫 전국대회 금빛 출발

종목별펜싱 강영미 개인전 우승
여자 에페 단체전은 아쉬운 3위

광주서구청이 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금·동메달을 획득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서구청은 지난 24일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 우승과 여자 에페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국가대표팀 맏언니 강영미다.

강영미는 8강에서 송세라(부산시청)를 15-10, 4강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1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는 1라운드에서 4점을 내주면서 시작했으나 이후 최인정을 코너에 몰아붙였고 주특기인 빠라드리뽀스트(상대선수의 공격을 막고 찌르는 기술)로 연속 2점을 따라갔다. 강영미는 2라운드에서 최인정이 주춤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습공격을 시도하면서 역전에 성공, 3라운드에서 점수를 주고받은 끝에 승기를 잡았다.

서구청 최은숙은 개인전 8강에서 전희주(강원도청)에 12-13으로 아쉽게 패하면서 5위에 머물렀다.

광주서구청은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3위에 올랐다.

8강에서 경기도청에 45-43으로 승리한 서구청은 4강에서 계룡시청에 44-45로 아쉽게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에페 우승은 강원도청이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안나린·최혜진, LPGA 데뷔전
27일 게인브리지…박인비도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안나린(26)과 최혜진(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루키로 첫 대회에 나선다.

안나린과 최혜진은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러톤의 보카 리오 골프클럽(파72·6,701야드)에서 열리는 게인브리지 LPGA(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주 올랜도에서 열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이은 2022시즌 LPGA 투어 두 번째 대회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최근 2년간 대회 우승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29명만 출전했고, '풀 필드' 대회는 게인브리지 LPGA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부터는 2022시즌 신인들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신인왕 후보로 꼽힌 만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경쟁을 시작한다.

선두 주자는 지난달 LPGA 투어 퀄리파잉(Q)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안나린이다.

안나린

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고 지난해 상금랭킹 9위에 오른 안나린은 Q시리즈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뽐내며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아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KLPGA 투어에서 10승을 올리고 2018~2020년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Q시리즈 수석은 놓쳤으나 공동 8위에 올라 한참 전부터 벼르던 미국 무대에 마침내 진출했다.

최혜진은 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는 등 초청 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터라 데뷔 시즌 활약이 주목된다.

신인 외에 한국 선수로는 개막전에서 공동 8위에 오른 박인비(34)를 필두로 이정은(26), 전인지(28), 김아림(27)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